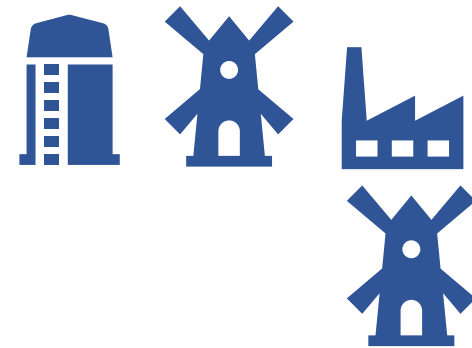




나의 프런티어 답사기

에너지 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현장 답사 - 충남 보령으로!



written by 현유정
from 소상공인 팀

Why 보령?

저와 저희 팀의 중심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이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폐쇄되어야만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는 직업을 잃고
석탄화력발전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보령시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관광과 수산업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Why 보령?

**우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소수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고
갈등을 줄이는 것이 더 빠른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며, 탄소중립 정책의 하나
라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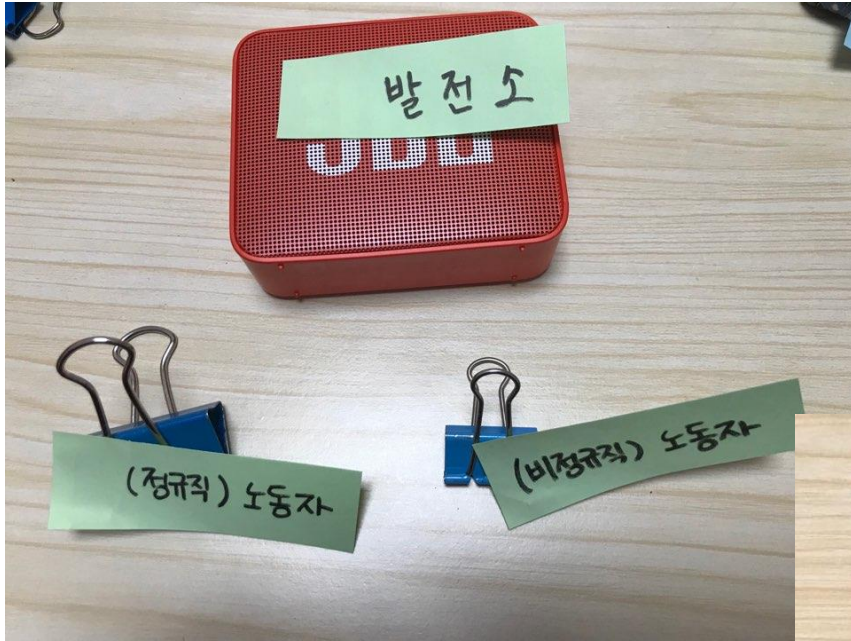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찾으러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다녀온 후 알게 된 것들을, 여러 물건들에 대입해보며 재구성해보았어요.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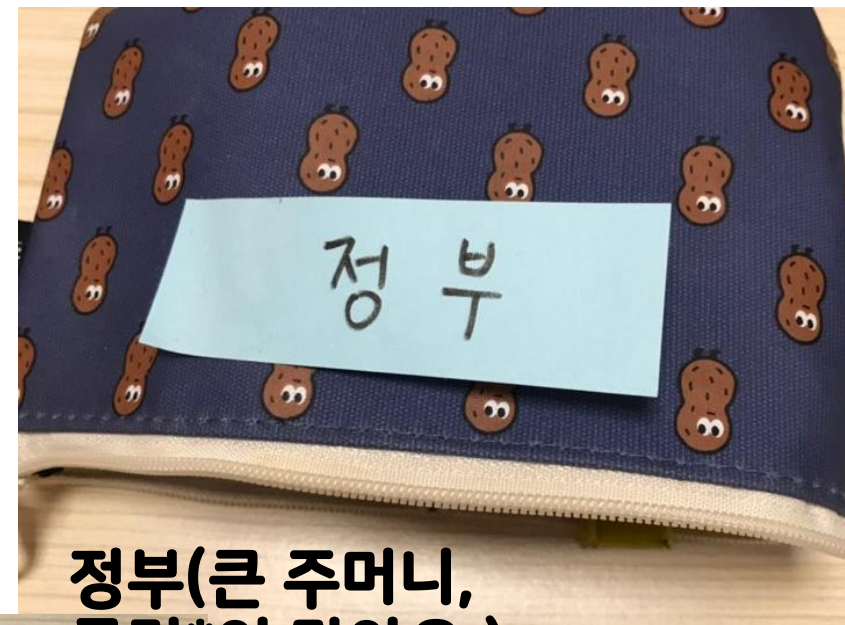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공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발전소
노동자

*클립*은 인적/물적 자원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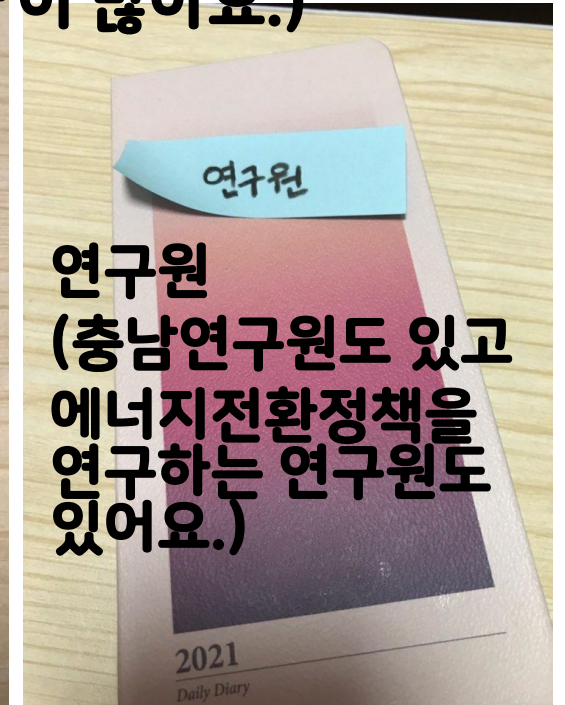
**보령시(작은 주머니,
클립*이 적어요.)**



**정부(큰 주머니,
클립*이 많아요.)**



국회



연구원
**(충남연구원도 있고
에너지전환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이상적인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해봅니다.

- 1) <정의로운 전환지원법>이 잘
정비되어 제정되고,
- 2) 이를 근거로 적절한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필요한
이들에게 자원을 분배합니다.
- 3) 필요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지자체에도, 발전소에도
자원이 지급되고,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 말이죠.

(이해관계자 간에 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할 거예요!)



조금- 더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하여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앞으로도 다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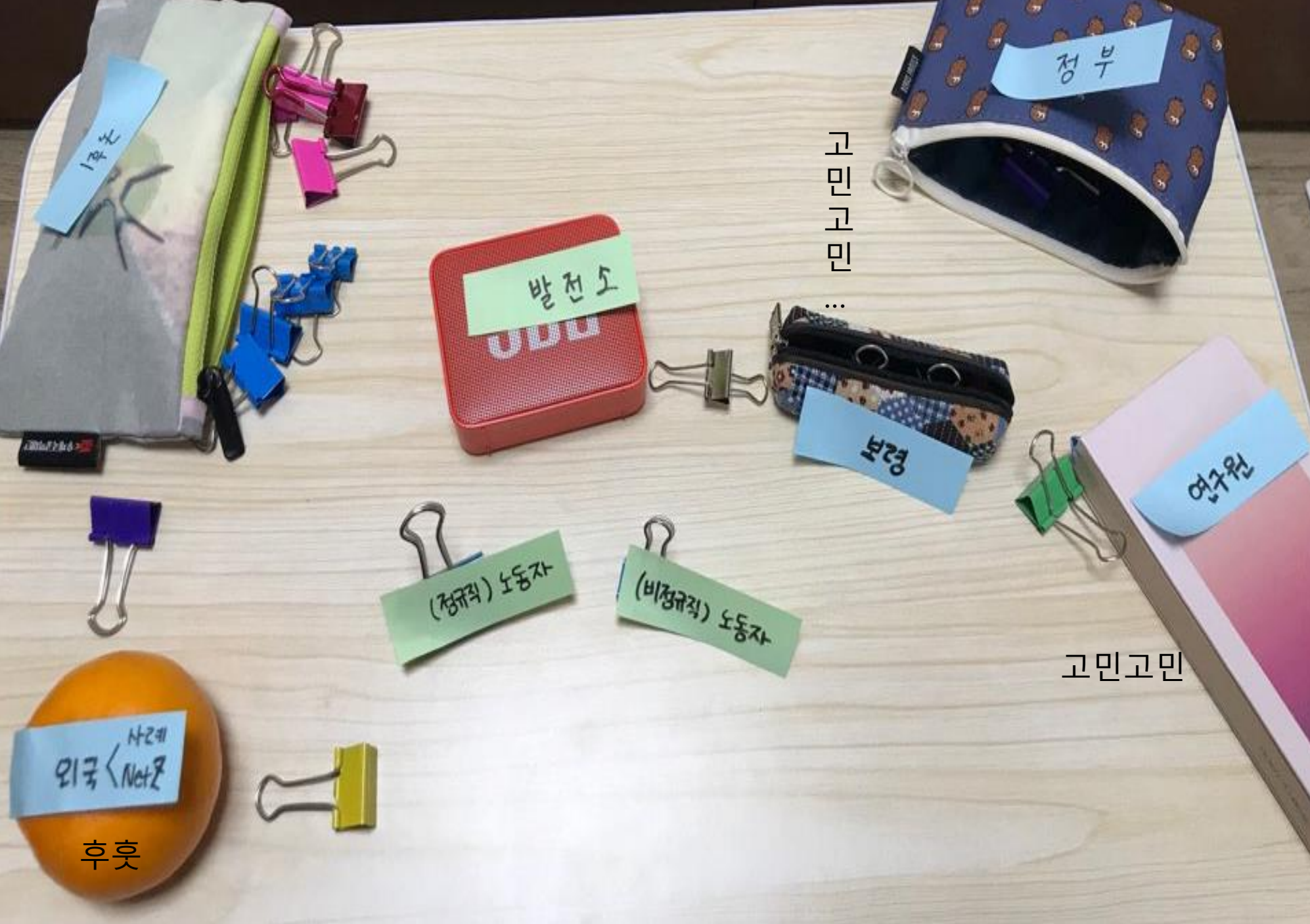


다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군요.

더할 나위없이,

고요합니다.

(그 와중에 고용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발전소 폐쇄가 걱정되는
보령시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
그러니까
탄소중립 선언을 했던
다른 국가들,
RE100 가입을 한
다국적 기업들,
탈석탄 열심히 추진
중인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법도 만들어지려
하고 있고. 연구원도,
보령시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정부도 고민을
시작했어요.)



**<정의로운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하셨던 의원님과의
인터뷰를 떠올려봤습니다.**

**지금
<정의로운전환지원법>은
심사도, 통과도 이뤄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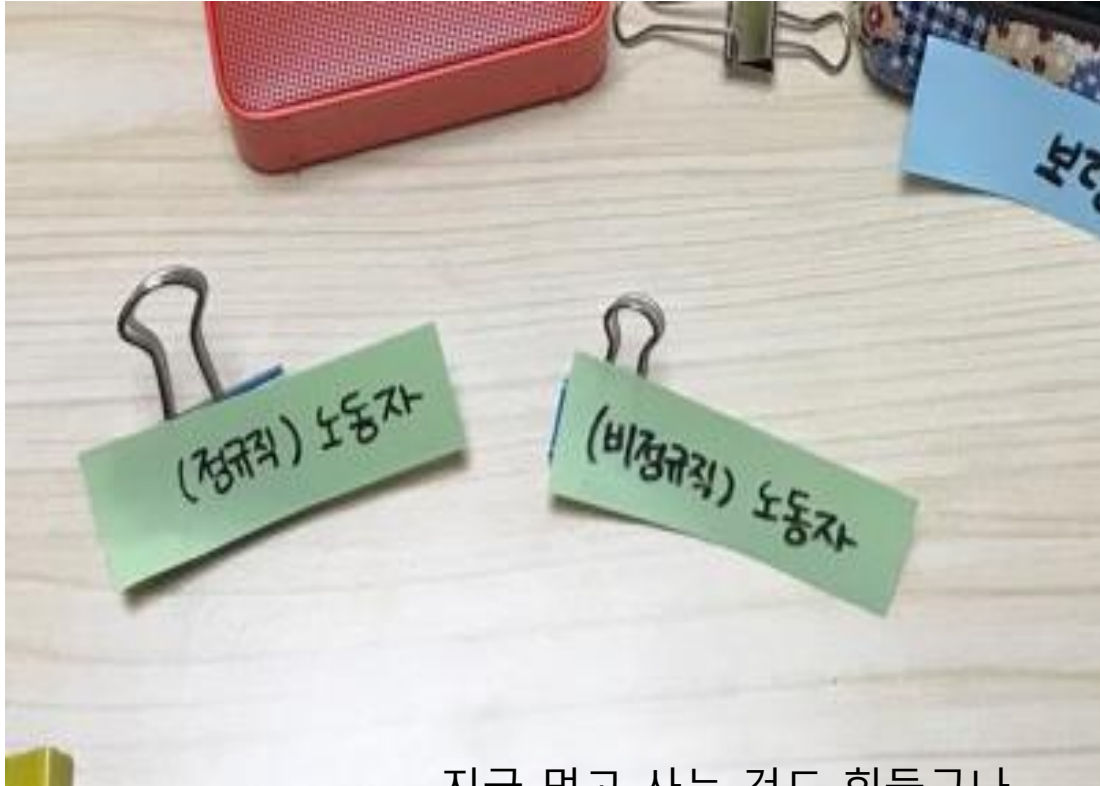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소중립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보령시의 팀장님과 나눴던 이야기도 떠올렸습니다.

**지금 보령시와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은 열심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해요.**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려 하고 있지만,
발전공기업은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미래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말 빠르게 폐쇄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했다고 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구나...

발전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곱씹어봤습니다.

실제로 만났던 분들은 간접고용 노동자였고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갈 곳이 없어질 상황이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보령시의 주민이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많이 두고 싶어하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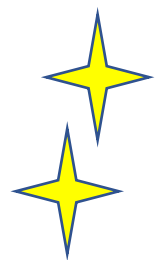
국회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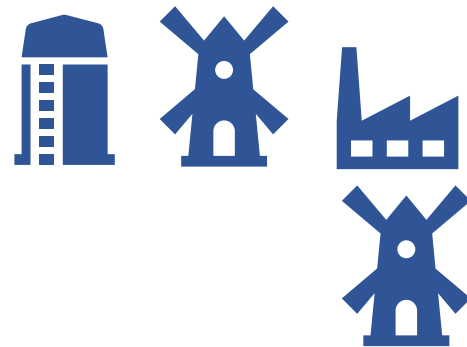
왜 안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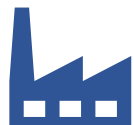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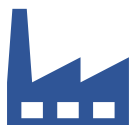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느낍니다.



'나의 프런티어 답사기' 요약



1.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 입게 될 보령시와 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대비책을 찾으러 보령시로 떠나 이해관계자들을 만났음.
2. 아직 관련된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노동자들도 일부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3.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written by 현유정
from 소상공인 팀